

로마는 비전을 수립한다 - 열네 번째

그리스도의 반영과 짐승의 우상 형성: 말세의 예언적 병행

Jeff Pippenger

2024-09-02

미국이 짐승을 위한 우상과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때를 지목하는 예언의 흐름은, 개신교의 뿌리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있을 때 일어난다. 그 형성은 다니엘이 원인적 거울과도 같은 '마라' 환상을 목도하는 다니엘 10장에서 구체적으로 지목된다. 다니엘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을 대표하며,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품성을 반영한다. 다니엘 10장에서 다니엘로 대표되는 14만 4천은, 그분의 품성을 바라볼 때에만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면에 이룬다. 바라봄으로 그들은 변화된다.

짐승의 우상은 그 짐승을 반영하며, 짐승의 우상이 형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큰 시험으로, 이에 의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개신교 교회들이 미국 정부의 통제권을 장악할 때, 그들은 정치적 지지가 제거되기 이전에 교황권이 사용하던 통제 구조를 드러내는 정교일치 체제의 형상을 만들어 놓게 될 것이다. 같은 시기에 그분의 마지막 때 백성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자들 중에는 그 환상을 보지 못한 이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도망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시험의 때에 자기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짐승의 우상의 형성이라는 시험에 실패하였다.

반사의 영적 원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울을 들여다봄으로 이루어지며, 그리고 "marah" 환상이 인과적 환상이기 때문에 거울 속 그리스도의 형상이 인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낸다. 물리적 거울은 거울을 보는 사람의 모습을 반사하지만, 이 원리를 영적으로 적용할 때는 거울과 관련된 변수들이 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보고 자기 길로 가서 곧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잊어버리는' 자다. 그들은 거울을 보고서도 오직 인간만을 본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일을 행하는 자"인 다른 부류는 하나님의 율법을 보고, 거울 속에서 그리스도를 본다. 그 일은 반영의 원칙에 "자연적" 현실과 영적 현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다니엘은 그 "일"을 한 자들을 보여 준다. 이는 그가 9장과 10장에서 반영이라는 영적 원칙을 형성하는 그 일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그 때에 나 다니엘은 온전한 세 이레 동안 애통하였다. 나는 맛있는 떡을 먹지 않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으며, 세 이레가 다 차기까지 내 몸에 기름도 바르지 않았다. 다니엘 10:1, 2.

가브리엘은 8장의 환상에 대해 다니엘에게 부분적인 해석을 해 주었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나 다니엘은 기절하여 며칠 동안 앓았고, 그 후에 일어나 왕의 일을 수행하였다. 나는 그 환상에 놀랐으나 아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다니엘 8:27.

화이트 자매는 가브리엘이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에게 전해 준 다니엘서 8장의 메시지의 해석을 다니엘이 이해하고자 했다고 우리에게 알려준다.

새롭고 더 깊은 간절함으로 밀리는 예언들의 연구를 계속했으며, 이제 실로 엄청난 중요성과 온 마음을 사로잡는 관심사로 보이는 그것을 연구하는 데 낮뿐 아니라 밤새도록 몰두했다. 그는 다니엘서 8장에서 2300일의 기점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다니엘에게 그 환상을 깨닫게 하라는 명령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도 그에게 부분적인 설명만을 주었다. 교회에 닥칠 무서운 박해가 예언자의 환상 속에서 펼쳐지자, 그의 육신의 힘은 무너졌다. 그는 더는 견딜 수 없었고, 천사는 한동안 그를 떠났다. 다니엘은 '기절하여 여러 날 앓았다.' 그는 말한다. '나는 그 환상에 놀랐으나,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자에게 명하셨다.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환상을 깨닫게 하라." 그 명령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했다. 그 명령에 순종하여, 얼마 후 천사는 다니엘에게 다시 와서 말하였다. "이제 내가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노라." "그러므로 이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깊이 생각하라." 다니엘 8:27, 16; 9:22, 23, 25-27. 8장의 환상 가운데 설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던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으니, 곧 시간, 즉 2,300일의 기간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천사는 설명을 이어가면서 주로 시간의 문제를 다루었다. The Great Controversy, 325.

제10장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환상'과 '그 일'을 깨달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나 다니엘은 더 큰 빛을 원했으므로, 그 깨달음을 얻기로 마음을 정하고 이십일 동안 금식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연계의 반사 원리가 예표하는 영적 반사의 원리를 이해하는 마지막 때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러한 이해는 그들의 행위로 드러나며,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는 추구로서 다니엘에게서 대표된다. 환상에서 달아난 자들과의 분명한 대조점은 그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니엘이 이해하기를 갈망하는 것으로 묘사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진리는 마지막 때의 빛이다. 이는 다니엘이 14만4천을 예표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있을 최종 시험으로 묘사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빛을 이해하고자 추구하는 한 부류를 대표한다. 이와 관련하여,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직전에 봉인이 풀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며, 동시에 그것은 짐승의 우상이 형성되는 것으로 묘사된 시험이기도 하다.

짐승의 우상이 형성된다는 것은 그 우상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의 과정을 곧바로 가리키는 것이다. 그 사실은 먼저 시험의 주된 대상인 짐승을 식별하지 않고서는 정확히 규정될 수 없다. 우상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규정하고 밝히는 것은 바로 그 짐승이다.

그러나 '짐승을 위한 우상'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그 우상은 두 뿔 달린 짐승에 의해 만들어지며, 짐승을 위한 우상이다. 그것은 '짐승의 우상'이라고도 불린다. 그러므로 그 우상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질지를 알기 위해서는 짐승 자체, 곧 교황권의 특성을 연구해야 한다.

초대 교회가 복음의 단순함에서 떠나 이교도의 의식과 관습을 받아들임으로써 타락했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능력을 잃었다. 그리고 백성들의 양심을 통제하기

위해 세속 권력의 지지를 구했다. 그 결과 생겨난 것이 교황권이었다. 교황권은 국가 권력을 장악하여 이를 자기 목적을 추진하는 데, 특히 '이단'을 처벌하는 데 사용하였다. 미국이 짐승의 형상을 이루려면, 종교 권세가 세속 정부를 그렇게 통제하여 국가의 권위가 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도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대쟁투, 443쪽.

"그 형상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짐승 자체—곧 교황권—의 특성을 연구해야 한다." 은혜의 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일어나며 마지막 때의 시험이 되는 그 환상을 세우는 것은 바로 그 짐승이다. 다니엘은 그 환상과 그 일을 이해했다.

바사 왕 고레스 제삼년에 이름이 벨드사살이라 불리던 다니엘에게 한 일이 나타났으니, 그 일은 참되었으나 정해진 때가 길었더라. 그는 그 일을 깨달았고 환상을 깨달았더라. 다니엘 10:1.

그 환상은 이천삼백 년에 관한 "mareh" 환상이다. "thing"은 히브리어 단어 "dabar"로, "말"을 뜻한다. 1절에서 "thing"으로 번역된 같은 단어("dabar")가 9장 23절에서는 "matter"로 번역된다.

내가 기도하며 말하고 있을 때, 처음에 환상 중에 보았던 그 사람, 곧 가브리엘이 급히 날아와 저녁 제사 때쯤 나를 만졌다. 그리고 그가 내게 알리며 나와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이제 내가 네게 지혜와 명철을 주려고 나왔느니라. 네 간구가 시작될 때에 명령이 나왔고, 내가 그것을 네게 알리려고 왔으니, 네가 크게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유의하라. 다니엘 9:21-23.

가브리엘은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여 다니엘에게 오는데, 그 기도는 레위기 26장의 흠어짐으로 상징되는 포로 상태에 자신이 처해 있음을 다니엘이 깨달았을 때 받은 깨달음과 관련되어 있다.

그가 왕으로 즉위한 첫해에, 나 다니엘은 책들을 통해 여호와와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칠십 년에 이를 것이라 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다니엘 9:2.

예레미야가 지적인 포로 생활은 다니엘을 모세가 기록한 "일곱 때"의 포로 생활로 이끌었고, 그것은 "맹세"이자 "저주"였다.

정녕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어기고 돌이켜 떠나 주의 음성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므로 저주와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가 우리 위에 쏟아졌나니, 이는 우리가 그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가 우리와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들을 대적하여 하신 말씀을, 큰 재앙을 우리에게 가져오심으로 확증하셨으니, 온 하늘 아래 예루살렘에 행해진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난 적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불의를 떠나 주의 진리를 깨닫고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 9:11-13.

예레미야와 모세라는 두 증인의 증언에 근거하여,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임한 황폐가 고대 이스라엘 위에 "쏟아부어진" "모세의" "저주"였음을 깨달았다. 화이트 자매는 예레미야의 증언을 "교회를 위한 증언들"이라고 부르며, 이런 점에서 이는 예레미야를 말세의 예언의

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말세의 "교회를 위한 증언들"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다. 예레미야는 예언의 영을, 모세는 성경을 대표한다.

다니엘은 그 두 증인을 통해 자신들이 흠어졌음을 깨닫고, 성경과 예언의 영을 통해 자신들이 깨어났음을 깨닫는 말세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이는 다니엘이 자신(그들)이 포로 상태에 있었고, 그 포로됨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나타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과 같다.

말세의 하나님의 백성의 경험은 열 처녀의 경험이다.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 비유는 또한 재림교인들의 경험을 보여 준다." 대쟁투, 393쪽.

열 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지체의 때는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이 겪은 것과 같은 각성을 상징한다. 두 거룩한 증인에 근거해 다니엘은 자신의 전 생애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특정한 예언의 성취였음을 깨달았다. 그 예언은 바로 다음 장에서 그에게 닥칠 일에 대비하려면 필요했던 해결책을 다니엘에게 가리켜 주었다. 마찬가지로, 밀러주의자들이 열 처녀의 비유를 성취했을 때, 그들 역시 첫 번째 실망과 지연이 자신들을 잠들게 했다는 사실에 대해 깨어나야 했다. 모든 선지자들은 말세를 상징한다.

다니엘과 밀러파의 각성은 마지막 때에 있을 십사만 사천 명의 각성을 증언하는 두 증인이다.

예수님과 하늘의 모든 천군은, 그들의 영혼이 사랑하는 그분을 뵈고자 기대어린 소망으로 오래도록 사모해 온 이들을 동정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셨다. 그들의 시련의 때에 그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천사들이 그들 주위에 머물렀다. 하늘의 기별을 받아들이기를 소홀히 한 자들은 흑암 속에 남겨졌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보내신 빛을 받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타올랐다. 그들의 주님께서 왜 오지 않으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 실망한 그 신실한 자들은 흑암에 버려지지 않았다. 그들은 다시 성경으로 인도되어 예언적 기간들을 살피게 되었다. 주님의 손이 그 숫자들에서 거두어지자, 그 실수가 밝혀졌다. 그들은 예언적 기간이 1844년까지 이어진다는 것과, 예언적 기간이 1843년에 끝난다고 보이기 위해 그들이 제시했던 바로 그 동일한 증거가 그것들이 1844년에 종결됨을 증명한다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빛이 그들의 입장을 비추었고, 그들은 지체의 때—'비록 그것[그 환상]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를 발견하였다. 그리스도의 속히 오심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들은 참으로 기다리는 자들을 드러내도록 의도된 그 환상의 지체를 간과했었다. 그들에게는 다시 한 번 정한 때가 주어졌다. 그러나 나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심한 실망을 극복하지 못하여, 1843년에 그들의 믿음을 특징지었던 그 정도의 열심과 활력을 다시 갖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초기 저술, 236.

비유가 성취되는 가운데, 밀러파 신자들은 '환상이 지체되는 것'을 간과했으나, 그들은 '다시' '예언 기간들을 연구하기 위해 성경으로 인도되었다.' 주님의 손이 그 숫자들에서 거두어지고, 그 오류가 설명되었다. 다니엘도 성경으로 인도되었고 '예언 기간들'에서 '주님의 손'이 거두어졌다. 그리고 다니엘이 단순한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로서, 능동적인 믿음으로 레위기 26장에 주어진 지시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흠어진 상태에 대한

치료와 해결책을 이행함으로써 예레미야와 모세의 메시지를 이해했음을 입증했을 때, 그 '설명'이 다니엘에게 주어졌다.

십사만 사천이 비유의 지체하는 때를 마지막 날들에 최종적이고 가장 완전하게 성취할 때, 그들은 '짐승의 형상이 형성되는 것'이 그들의 큰 시험이 되는 시기에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다음 글에서 이러한 생각을 이어가겠습니다.

"열매가 맺히면 즉시 그는 낮을 대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교회 안에서 그분 자신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의 백성 가운데 완전하게 재현될 때, 그분은 그들을 자기 소유로 삼기 위해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실물교훈 69.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어둠이다. 사람들은 그분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가고 있다. 그분의 품성은 오해되고 곡해되어 왔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별이 선포되어야 한다. 그 기별은 비추는 영향과 구원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분의 품성이 알려져야 한다. 세상의 어둠 속에 그분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와 진리의 빛이 비추어져야 한다.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밝힌 바 사역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힘 있게 너의 목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높이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보라, 주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오실 것이요, 그의 팔이 그를 위하여 다스릴 것이라; 보라, 그의 상급이 그와 함께 있고, 그의 일이 그의 앞에 있느니라." 이사야 40:9, 10.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백성에게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이라고 말해야 한다. 자비로운 빛의 마지막 광선, 곧 세상에 주어질 마지막 자비의 메시지는 그분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계시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삶과 품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이루어 주신 것을 드러내야 한다." Christ's Object Lessons, 415.